

사람들은 역사가 발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눈에는 역사란 그리 발전하는 것 같지 않다. 다만 변화한다고나 할까? 그나마도 성급한 역사 변화 또는 변혁이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다. 역사 속에서 예를 둘 만 들어 보자. 하나는 우리 역사에서의 대표적 개혁가 조광조(趙光祖)의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 혁명 때의 개혁(改曆) 노력이다.

먼저 <프랑스 혁명> 때의 달력 고치기---. 1789년 바스티유의 함락으로 새 천지가 열렸고, 왕 부부는 처형되고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 그 와중(渦中)에 혁명정부는 미터법을 채택해 10진법 도량형의 길을 열었고, 달력도 고쳐 <혁명력> 또는 <공화력>을 채택했다. 1799년 확정된 미터법은 2백년이 지난 지금 세계로 퍼져 있으니 크게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혁명력>의 운명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혁명정부는 왕정 대신 공화정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여 1792년 9월 22일을 새 시대의 원년(元年) 1월 1일이라 선포했다. 실제로 이 달력이 확정된 것은 꼭 1년 뒤의 일이었지만, 1년을 소급해 새 역법을 적용한 셈이다.

새 역법에 의하면 1년은 12달, 한 달은 30일인데, 그 때까지 써오던 1주일 7일의 단위를 없애고, 10일 썩의 기간을 두었다. 주(週) 대신 순(旬)을 기준삼은 것은 10진법에 대한 집착이었다. 이리하면 1년은 360일 뿐이어서, 당연히 연초에 5일을 따로 두어 축제일로 삼을 수밖에---. 그리고 4년에 한번 꼴로 생기는 윤일은 '혁명의 날'로 기념하고---. 참 그럴듯한 새 달력이었다. 하지만 이 역법은 14년만인 1805년 말에 폐기되고 말았다. 공포 속의 개혁 바람이 사그러 들면서, 주동자들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반동' 세력이 힘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엉뚱하게도 청년 장군 한 명이 정권을 잡고 혜성처럼 등장했다. 나폴레옹이다.

그런데 왜 반대자들은 정치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렇게 합리적인 달력을 거부했을까? 혁명정부의 급격한 개혁 노력 여러 가지가 두루 반발을 불렀겠지만, 사람들이 새 달력을 싫어한 제일 절실한 이유는 그들의 휴일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누가 1주일에 한 번 쉬려하지, 열흘에 한번만 쉬겠는가?

여기에 우리 역사에서 조광조(趙光祖 1482-1519)의 개혁운동을 겹쳐 놓아 보자. "1515(中宗 10)년 젊고 깨끗한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조선 시대의 개혁



## 역사 속에서 배운다

글박 성 래(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과학사)



노력은 시작된다고 역사 책들은 기록하고 있다. 34살의 젊은이 조광조는 임금의 신임 속에 고숙송진을 거둬했고, 이를 배경으로 그는 급격한 개혁운동을 벌렸다. 그가 주동한 개혁 가운데에는 어진 사람(賢人)을 무시험으로 천거하여 관직을 주자는 현량과(賢良科), 도교를 숭상하던 소격서(昭格署)의 폐지, 향약(鄕約)과 도덕 교육의 보급, 그리고 공신들의 삭훈(削勳) 등이 있었다.

소격서를 없애는데 대한 반발도 없지 않았겠지만, 공신의 삭훈은 큰 불만의 요인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국가 유공자의 연금을 대폭 삭감한 꼴이랄까? 공신 가족들이 얼마나 이를 갈았겠는가? 하지만 비판자들에게 조광조를 끌어내릴 빌미를 준 결정적 문제는 우의정 안당(安? 1460-1521)의 아들 셋(3)이 모두 현량과에 급제했다는 사실이었다. 28명을 뽑은 첫 번의 현량과에 안당의 아들 3명이 모두 합격했다니, 이거야 누가 보기에다 너무 심하지 않았을까? 한 해 1천명을 뽑는다는 오늘의 사법 시험이라도 최고위층의 아들 셋이 동시 합격했다면 의혹의 눈초리가 없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 오늘의 사법 시험과 달리 그 때의 현량과란 전혀 객관적인 필기시험은 없이 고위층이 ‘덕(德)있는 훌륭한 인물’이라 추천하면, 이를 자기들끼리 심사하여 합격시키는 과거(科擧)였다.

이렇게 득세하기 4년 만에 조광조는 갑자기 임금의 신임을 잃고, 권력의 핵에서 튕겨져 나갔다. 그가 주도했던 이상주의적인 도학(道學)정치 내지 지치주의(至治主義)는 1519년의 기묘사화로 마감하게 된다. 비록 그의

이상은 그 후 조선 시대의 ‘참’ 선비들의 뜻으로 남아, 조광조를 사림과의 가장 대표적인 스승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말이다.

“젊고 깨끗하다”는 교과서적 이미지가 조광조에게 걸맞는지 나는 의심스럽다. 그가 젊은 나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꼭 깨끗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가 도입한 현량과에 아들 셋을 동시 합격시킨 안당은 바로 그의 후원자였다. 그가 처음 관직을 얻었을 때부터 그를 도운 안당은 그가 사약을 받게 될 상황에서도 그를 도와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조광조는 끝내 죽임을 당했고, 불과 2년 이내에 현량과로 급제했던 안당의 아들 셋 가운데 둘이 죽었다. 안당 자신조차 그 아들들의 역모 사건으로 사형 당했다. 조작된 사건이었다는 후문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비하면 프랑스혁명의 주도자 로베스피엘은 진짜로 깨끗했던 인물로 보인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많은 것을 고치려던 열정은 끝내 그의 목숨도 단두대 위에 얹고 말았다.

개혁은 그 주도자의 도덕적 근거가 흔들려서는 성공할 수 없다. 또 아무리 훌륭한 개혁이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는 이룩할 수가 없다. 사람이란 누구나 걸으려는 번지러한 말을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듯이 여겨져 하는 말이다. TTA



조광조 유배지



조광조 묘비석



정암 조광조